

# 企業經營과 勞使協調

李 奎 昌

〈檀國大學校 教授 經營學博士〉

◇……編輯者 註 : 이 글은 第8回 洋灰業界勞使問題 特別세미나에서 발표된 수편의 주제는문중 하나로서 ……◇  
◇……노사협조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특별게재하는 것입니다. ……◇

## I. 경제현황과 불황요인

지난 2월의 경기종합지수는 1월에 비하여 0.3% 감소함으로써 1980년의 10월 이래 계속 5개월간 뒷걸음치고 있다.

이러한 불황의 늪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하여 4월 16일의 월간 경제동향 보고에서도 경기회복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경제기획원장관은 보고하고 있다. 수출주문량도 -30%라는 후퇴상을 보여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의 7.1%보다 둔화된 6.1%에 머물것이라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황의 원인을 살펴보자. 그 원인은 국내외의 양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수출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에서 불황의 원인을 살펴 봄에 있어 1차적으로 해외부문에 관심을 두어야 함은 불가피한 일이다.

세계경제의 불황요인들은 하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1970년대의 불황은 원유를 중심으로한 자원파동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실업율의 증가와 불황의 원인은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이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을 때 호황으로 전환될 것인가에도 의문은 있다.

한편 국내적 요인에서 볼 때 이러한 국제적인 불황기에 상승된 지난날의 무제한 증공업 중심적 고도성장 정책의 문제들이 노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언하면 해외수출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위축된 설비투자의 부진, 유효수효의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 산업자금의 부족, 건축면적 효과의 감소 등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물가가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국제수지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사실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구매력의 감퇴로 인한 매기부진이 물가안정을 가져왔고 국제수지 적자폭의 축소 역시 경기 침체가 빚은 수입수요 감소의 결과였지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II. 어떤 기업의 불황해결책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환경적요인으로서의 국제경기회복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임이다. 또 국내경기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미 실행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리인하였고, 수출금융의 인상이었으며 부동산경기의 촉진대책이 었지만 투자유인책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못하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guide line 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10% 내외의 저임금인상 정책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경기대책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자본행동의 요구에 무한히 응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이다. 예컨대 금리를 낮춘 결과 국제금리보다 낮아져 외자도입에 의한 설비투자를 가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은 결과적으로 국민대중의 구매력을 감축하여 상대적인 시장의 협일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불황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종합화되고 과감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치 못하나 기업 그 자체의 불황극복 의지가 없으면 이 난국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몇몇의 기업을 보게 된다. 그러한 기업들은 일컬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이며 노사협조가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기업들이다.

### III. 생산성향상의 의미

생산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구구하다. 또한 생산성이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뜻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들것없이 동일한 여건하에서 단위시간당 많이 만든다고 하는 일 이외에 불황기에 기업이 경쟁에 이기고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성 향상은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음의 간단한 식에 의해서 살펴보자. 흔히 생산활동에 의하여

증가한 가치를 부가가치라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에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것을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begin{aligned} \text{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 \frac{\text{유형고정자산}}{\text{종업원수}} \\ &\times \frac{\text{매출액}}{\text{유형고정자산}} \times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 &= \text{노동장비율} \times \text{유형고정자산회전율} \\ &\times \text{부가가치율} \end{aligned}$$

이렇게 볼 때 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장비율 또는 유형고정자산회전율 그리고 부가가치율의 어느 것 하나나 또는 전부가 더불어 상승한다.

이 중에서 노동장비율의 증가는 기업이,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의 증가는 근로자에 의해, 그리고 부가가치율의 증가는 근로자의 기술집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할 때 오늘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으로서의 생산성 향상 또한 그 근본이 노사협조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IV. 노사협조의 길

빈번한 노사분규에 의한 기업의 위축은 노사 쌍방에 손해를 가져오는 이미 보아온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원만한 노사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몇가지 장애요인이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협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노사쌍방에 불신감이 그대로 잔존하게 된다.

또한 자기 의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을 보게 된다. 권리의 주장만 있지 의무는 방관코져 한다.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만 있으며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자기 직무에 대한 천직의식도 부족하다. 이러한 전근대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노사협조의 올바른 길을 추구치 못하고 있다.

1980년 12월에 개정된 노사관계법의 규정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올바른 노사협조를 위하여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 또한 있어야겠다. ♣♣